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 · 중 복합 관형어 대조 연구



202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CAI SIYI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 · 중 복합 관형어 대조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CAI SIYI

CAI SIYI 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25일

위 원 장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성 미 (인)

위 원 문학박사 채 영 희 (인)

〈목 차〉

차례	i
표 차례	iii
논문요약	iv
I.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3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6
II. 한·중 복합 관형어 연구의 이론적 배경	7
2.1 정의의 대조	7
2.2 특징의 대조	12
III. 관형어 겹침 구조와 수식 구조	18
3.1 한국어 복합 관형어 겹침 구조와 수식 구조	18
3.2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구조	36
3.3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 비교	47
IV. 한·중 복합 관형어 사용 오류분석	52
4.1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52
4.2 오류 분석	54

V.결론 및 제언	59
참고 문헌	62



〈표 차례〉

〈표 1〉 한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분류표	15
〈표 2〉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분류표	16
〈표 3〉 한·중 관형어의 구성성분 비교표	17
〈표 4〉 한국어 관형어의 겹침 구조 분류표	21
〈표 5〉 중국어 관형어	36
〈표 6〉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대응표	49
〈표 7〉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유형	49
〈표 8〉 결합 양상에 따라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대조표	51
〈표 9〉 참여자의 정보	52
〈표 10〉 설문 문항	53
〈표 11〉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번역 양상	55

한·중 복합 관형어 대조 연구

CAI SIYI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논문 요약

The Attributes are attachment component in Korean and Chinese, in sentence has ability to do a numerical formula. When learning a language, it is important to learn the language effectively when you are conscious of how your native language and learning runs and know what the important difference is. Tubular words consist of tubular words such as tubular words, body language tubular words, and idiom tubular words to modify or limit central words. Tubular words are sometimes modified into central words alone to perform this function, but depending on the situation, multiple tubular words are called complex tubular words in Korean to modify central words in order to modify them more clearly and in detail than the meaning of central words. There is no article called tubular language in the Chinese sentence component, but there is an article called sardines that corresponds to Korean tubular language and can be seen almost consistently. In this study, all Chinese idioms are called tubular languages. By comparing the structure of the Korean-Chinese complex tubular language, the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use of the complex tubular language were examined, and the types of errors frequently committed due to interference in the local language were analyzed.

I.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¹⁾ 구조를 대조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자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어휘에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한자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한 중 언어 대조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으며 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다. 대조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분야이며 두개이상의 언어를 똑같은 관점으로서부터 대비시켜 차이점을 드러나게해 또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야이다. 대조언어학은 계통관계에 유래한다고 가정되는 몇몇 언어 간의 유사점에 착목하는 비교언어학과 달리 그저 언어 간의 차이점에 착목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계도 상관없이 아무 두개이상의 언어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조언어학의 범주로 떨어지는 연구의 경우 대상으로 잡히는 언어는 단 두개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모어와 그 배우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면 그 연구 성가를 그 들을 지도할 시 이용할 수가 있다. 언어를 배울 때 자신의 모어하고 배우고 있는 언어가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달리는지를 의식하고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이 그 언어를 배우는데 하마터면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오류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교사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응용언어학적인 성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중국과 한국 관련 언어 연구 중에서 본고는 한·중 복합 관형어를 선택

1) 최윤택(2014)에서 한국어 관형어의 접침 구성을 복합 관형어라고 부른다.

하여 대조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관형어는 관형사, 체언 관형어, 용언 관형어 등으로 관형어를 구성하여 중심어를 수식하거나 제한 기능을 수행한다. 관형어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형사, 체언 관형어, 용언 관형어 등을 홀로 중심어로 수식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심어의 의미보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수식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형어가 함께 중심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를 한국어에서 복합 관형어라고 한다. 문장 성분으로 보면 중국어 문장 성분에 관형어라는 품사가 없지만 한국어 관형어와 해당하고 거의 일치하게 볼 수 있는 정어(定語)라는 품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

둘째, 교재와 책을 많이 읽어 봤는데, 사람들은 한글과 중국어의 대조 연구를 중시하게 되었지만, 부족한 것은 중국어 문장 성분에 관형어라는 품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복합 관형어에 대한 내용이 솔솔했다는 점이다. 복합 관형어는 중요한 문법 지식점이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한국 모두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지 않아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습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³⁾

셋째, 중국어와 한국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므로, 그 문장은 구조도 다르다. 복합 관형어 성분은 문장에서 표현 형식과 사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서 한·중 복합 관형어의 차이를 알아야 한국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앞으로 문장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관형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오류를 줄이고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2언어로 배우고 있고 또한 나중에 한국어를 배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언어를 대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에 필요한 학습 방법을 제시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어는 모두 관형어라고 부른다.

3) 예를 들어, TOPIK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서 쓰기 부분에는 복합 관형어가 잘 쓰면 점수 잘 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한·중 복합 관형어 수식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2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에 대한 기존 연구와 한·중 복합 관형어 대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논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복합 관형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1 한국어 복합 관형어에 대한 연구

우선 복합 관형어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관형어는 초기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초기의 전통 문법 학자들이 관형어의 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부사어와 함께 꾸밈말의 범주로 처리하였다. 김봉모(1978)에는 195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문법서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여 처리했다. 관형어와 부사어를 따로 분류한 이후 1960년대에 한국어 관형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문장성분은 문법연구와 교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관형어는 한국어와 한어 구절성분중 특색있고 복잡한 언어 현상으로서, 관형어의 의미특징뿐만 아니라 문법, 어용, 음성 등 방면의 요소와 관련하여 문법학계에서 줄곧 주목을 받아왔다. 본문에서 주로 복합 관형어에 대해 검토하겠다.

국내에서 복합 관형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연구는 주시경(1910), 최현배(1937), 정인승(1957), 김봉모(1978/1992), 고영근(1987), 정영주(1989), 송효빈(1998), 김기복(1999), 김선효(2002), 최윤택(2014)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시경(1910), 최현배(1937), 정인승(1957)은 복합 관형어의 꾸밈 관계를 '동일 수식 구조'로 해석하였고 김봉모(1978/1992), 남기심·고영근(1987), 정영주(1989), 송효빈(1998), 김기복(1999), 김선효(2002), 최윤택(2014)에서 복합 관형어의 꾸밈 관계를 '복합 수식 구조'로 해석하였다. 김봉모(1978/1992)는 복합 관

형어의 꾸밈 관계를 살펴보고 기본 배열 순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송호빈(1998)은 관형어 겹침 구조를 모두 14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관형사와의 연결은 4유형으로 나누었고, 명사의 관형사형과의 연결은 6유형으로 나누었고, 용언의 관형사형과의 연결은 4유형으로 나누었다. 관형어 겹침 구조를 모두 14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그중 김기복(1999)은 복합 관형어의 현상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 유형은 '[관형어[관형어[중심어]]]'로 제시하였고 또 한 유형은 '[[관형어[관형어]]중심어]'로 제시하였다. 첫 째 유형은 진정한 수식 구조라고 검토했다. 김선호(2002)는 관형어의 겹침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첫 번째 관형사 관형어의 겹침 현상은 관형사의 이중 겹침 현상과 관형사의 삼중 겹침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하였다. 둘 째 용언 관형어의 겹침 현상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에 따른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셋번째 복합한 겹침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김영송(1973), 김창식(1984) 등은 관형어의 겹침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1.2.2 중국어 복합 관형어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중국어에 관한 복합 관형어 어순 방면의 연구는 많다. 중국에서 복합 관형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연구는 丁聲樹(1961), 朱德熙(1982), 劉月華(1984), 임명순(1992), 陸丙甫(1988), 강병진(2005), 崔美敬(2009) 등이 있다. 朱德熙(1957)은 사람이나 사물을 분류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되는 제한성 관형어와 중심어가 가리키는 사물의 상황이나 상황을 묘사한 일반적으로 성질, 상태, 특성 등의 방면에서 중심어의 정어를 묘사하는 묘사성 관형어로 된다. 이들의 분류 근거는 관형어와 중심어 사이의 의미 관계다. 丁聲樹(1961)에서는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의 일반적인 순서를 논의했다. 劉月華(1982)는 복합 관형어의 분류와 그 배열 순서를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처소사

와 종속성 명사가 동시에 나타날 때, 처소사는 반드시 종속성 명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둘째, 수량을 표시하는 단어는 제한성 관형어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규칙적이며, 이 규칙은 ‘제한성 관형어+수량 관형어+묘사성 관형어’로 요약된다. 陸丙甫(1988)에서는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에 대한 의미 순서 묘사를 세분화하였고 여러 개의 접착식 관형어 어순과 조합식 복합 관형어 어순을 각각 기술했다. 임명순(1992)는 중국어 관형어의 후치현상에 대해 부정 태도를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형어와 중심어의 결합 관계를 살폈다. 강병진(2005)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의미 관계하고 어순관계에 대해 다루었다.

1.2.3 한·중 복합 관형어 대비에 대한 연구

한·중 복합 관형어 대비에 대한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대표적인 연구는 유호, 심지수(2020), 안연령(2011), 이정실(2019)등이 있다. 유호, 심지수(2020)에서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의 결합 양상과 복합 관형어의 수식구조에 나타난 오류를 검토하였다. 한·중 복합 관형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학습자의 실제 복합관형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안연령(2011)이나 이정실(2019) 등 일부 연구에서 한국어의 복합 관형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연구하였으나, 단순한 대조로 그쳤다고 본다. 한편 중국에서 崔美敬(2009)에서는 한·중 관형어를 대비하여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관형어에 관한 오류분석의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중에 복합 관형어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 비교 어순에 관한 논의를 많이 진행하였고 수식 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중 복합 관형어를 대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표준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귀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대조하려고 한다. 실례를 들고 표를 참고하여 거기에서 제시하는 법칙을 직관적인 대조와 귀납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조 연구는 이론과 응용의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대조 분석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 째, 대조의 범위는 기준 언어를 설정한다. 강현화 외(2003)에서는 대조분석은 반드시 기준 언어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해서 대조의 범위는 기준 언어를 설정하기로 했다.

둘 째, 대조 분석은 먼저 한국어 복합 관형어를 기존 연구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또 각각 하위 분류의 수식 구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구조를 대조한다.

셋 째, 중국인 학습자가 복합 관형어 사용시 나타나는 오류유형을 분석한다.

넷 째,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구조를 대조하는 법칙을 밝힌 다음에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제시한다.

Ⅱ.한중 복합 관형어의 이론적 배경

2.1 정의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를 대조하기 위하여 우선 양국 언어의 문장의 성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문장의 성분은 학교 문법에 따라 주성분,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 성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국어의 문장 성분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한국어의 문장의 성분표4)

주성분	주어(임자말), 서술어(풀이말), 목적어(부림말), 보어(기움말)
부속 성분	관형어(매김말), 부사어(어찌말)
독립 성분	독립어(홀로말)

〈표1〉를 보면 한국어의 문장의 성분은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와 보어 네 가지 있다. 부속 성분은 관형어와 부사어 두 가지 있다. 그리고 독립 성분인 독립어 총 7 가지가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문장 성분에는 주어, 술어(謂語), 목적어(賓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보어(補語)등 6 가지로 구분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성분을 보면 중국어 문장 성분 안에 관형어라는 품사가 없지만 한국어 관형어와 대응하는 정어(定語)라는 품사가 있다.

4) 혜정(2012)참조해서 필자가 다시 표<1>처럼 정리했다.

2.1.1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정의

먼저 한국 관형어를 살펴보겠다. 정희진 (1999:14-18)에서 관형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관형어는 체언 앞에 위치한다.
- (2), 관형어가 체언만 꾸며준다.
- (3), 관형어는 제한적 기능을 하여 체언을 수식한다.
- (4), 관형어의 위치는 반드시 명사와 대명사 등 체언 앞에 붙어야 하고 의존성이 강하다.

관형어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겹쳐 쓰일 때도 있다. 셋이나 넷이 겹쳐 쓰일 때도 있다⁵⁾. 안연령(2011 : 26)에서는 관형어는 관형사, 체언 관형어, 용언 관형어 등으로 관형어를 구성하여 중심어를 수식하거나 제한 기능을 수행한다. 관형어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형사, 체언 관형어, 용언 관형어 등을 홀로 중심어로 수식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심어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수식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형어가 함께 중심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를 한국어에서 관형어의 겹침 구조라고 한다. 최윤택(2014)에서 한국어 관형어의 겹침 구성을 복합 관형어라고 부른다. 관형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관형사, X-의, 체언구, 관형절 하나가 관형어가 되어 그 뒤의 말을 꾸며주고 있을 때 3가지로 나누었다.⁶⁾ 관형어가 겹쳐 쓰일 때에 경우에는 이상복(2001:57)에서는 체

5) 김창식(1984), 김봉모(1992), 송효빈(1998)에서는 두 개의 관형어 겹침 현상도 있고 셋 이상의 관형어 겹침 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하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 하나의 중심어에 이상의 관형어 겹침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6) 이상복(2001)에서 관형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ㄱ. 새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 ㄴ. 손님이 두 분 오셨다.
- ㄷ. 저 아이는 어디가니?

언 앞에 관형어가 오는 경우 항상 하나의 관형어만이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둘 이상의 관형어가 겹쳐 쓰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한 체언 앞에 둘 이상의 관형어가 겹쳐 쓰일 때 그들이 모두 그 체언구의 중심어인 한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2.1.2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정의

중국 관형어의 정의와 특징을 보겠다. 안연령(2011 : 26)에서 중국어 관형어의 정의, 기능, 위치, 구성 등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중국어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2) 중국어 관형어의 모든 구성 성분은 보통 구조조사 '的'를 동반해 관형어로 실행할 경우가 많지만 '的'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수식어와의 양보 안되는 소유주(소유물)의 관계일 때면 '的'이 생략될 수 있다. 양보 불가능한 소유는 보통 신체 부위, 가족, 친척의 관계 등이 있다.⁷⁾

ㄹ.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ㄴ. 이번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ㄷ. 그와의 약속은 꼭 지킵시다.

체언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따라갔다.

ㅇ. 저 쪽 길로 가십시오.

관형절 하나가 관형어가 되어 그 뒤의 말을 꾸며주고 있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ㄱ. 누구를 대표로 보내느냐는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다.

이상복(2001)에서 X-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그는 아직까지 고향을 떠나 본 일이 없다.

ㄴ. 네가 어제 산 책이 이책이냐?

7) 我弟弟去图书馆了。(내 남동생이 도서관에 갔다.)

⇒ 我的弟弟去图书馆了

(3) 중국어 관형어가 중심어 앞에 위치한 것은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후치도 된다. 중국어 관형어는 단항 관형어와 복합 관형어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에서 관형어는 보통 정어라고 불리며 단항 관형어는 중심어 앞에 관형어 단 하나만 있는 것을 말하고, 복합 관형어는 중심어 앞에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먼저 관형어의 정의를 邢福義(2006)는 “관형어는 명사적 단어 앞에 수식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누구(的)’ ‘어떤(的)’ ‘얼마나’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학자마다 복합 관형어에 대해 부르는 명칭이나 정의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范繼淹(1958)의 〈形名組合間‘的’語法作用〉에서 다항식 관형어라는 말 가장 일찍 나왔다. 여기에서 다항식 관형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定語는 일반적으로 수식받는 中心語의 앞에서 단 하나의 詞로 中心語를 수식·제한하는 경우는 물론, 한 문장 속에서 中心語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 개의 短語나 短語들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여 中心語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의 短語나 短語들의 결합이 내용상 일정한 논리적 관계를 구성하여 중심어를 수식·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결합 구조를 多項式 定語라 한다.⁸⁾

劉月華(2001)에서 복합 관형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나의 偏正短語에는 여러 개의 수식구가 올 수 있는데, ‘清澈, 明亮的窗戶’, ‘一本很厚的書’, ‘站在門口的那个穿皮夾克的人’ 등이 그예이다. 이러한 구에서 보이는 수식어를 다항정어(多項定語)라고 한다.

8) 강병진(2005)에 참고해서 정리한다.

齊滬揚(2005)은 “문장에 중심어 앞에 있는 관형어가 하나 이상 되고 관형어가 겹쳐 쓰이면 복합 관형어라고 한다. 齊滬揚(2005)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 문장성분은 복합 관형어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반드시 관형어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둘째, 한 가지 이상의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이 관형어들은 겹쳐 쓰여서, 즉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야 한다.

단항 관형어와 복합 관형어의 차이도 제기되는데 주요 차이는 양자의 관형어의 수량이다. 일반적으로 복합 관형어는 단항 관형어의 기준에 하나 아니면 하나 이상의 관형어를 덧붙여 구성된다. 즉, 단항 관형어로 쓸 수 있는 단어나 구는 다른 단어나 구와 함께 복합 관형어를 구성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관형어를 할 수 있는 단어나 구의 주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수량 구, 주술 구, 개사 구 등등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대해서는 복합 관형어(定語)의 어순 문제가 걸려 있다. 제3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2.1.3 한·중 복합 관형어의 정의의 대조

한·중 관형어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한·중 관형어의 정의는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먼저 명칭은 중국어에서는 ‘정어(定語)’라고 부르고 우리말에서는 ‘관형어(冠形語)’라고 부른다.

2. 기능적으로 보면 두 관형어가 모두 수식어이며 피수식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수식을 받은 중심어는 모두 명사성 성분이어야 한다.

3. 한국어의 관형어는 피수식어 앞에 위치한 것이 필수적이고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중국어에서 관형어가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일부로 강조하기

위해서나 문장 구조를 더 합리화하기 위해 후치로 표현될 때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관형어는 주로 전치(前置)로 채택한다.⁹⁾

4. 문장 성분을 보면 한·중 관형어가 두 언어에서 모두 문장의 부속성분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는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5. 형태적으로 보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은 모두 “관형어+중심어”이다.¹⁰⁾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관형격 조사'-의'와 관형형어미(는, ㄴ/은, 던)와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중국어에서 관형어는 대부분 구조조사 '的'와 결합한 형태로 관형어를 실현된다.¹¹⁾

그리하여 문장 성분으로 보면 중국어 문장 성분에 관형어라는 품사가 없지만 한국어 관형어와 해당하고 거의 일치하게 볼 수 있는 정어(定語)라는 품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2.2 특징의 대조

제2절에서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과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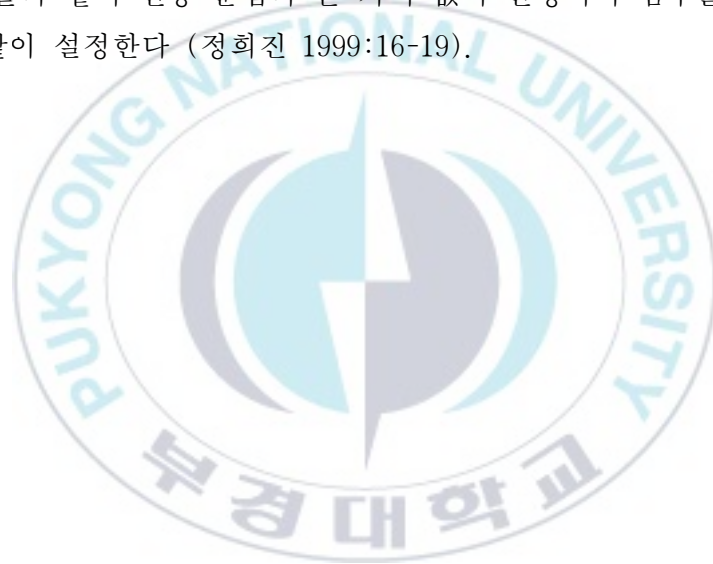
2.2.1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

먼저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안연령

-
- 9) 他給我一件衣服，藍色的
그는 나한테 푸른색 옷을 주었다 .
荷塘四面，長着許多樹，蓊蓊郁郁的
荷塘의 사면에는 수 많은 초록이 무성한 나무들이 서있다 .
- 10) 예쁜 여자 漂亮的女人
착한 사람 心地善良的人
- 11) 보는 사람 看的人
밥을 먹는 사람 吃飯的人
- 12)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어는 모두 관형어라고 부른다.

(2011)에서는 우선 관형어 구성성분의 범주에 대한 견해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하였다. 김봉모(1983), 김기복 (1999), 고영근·남기심 (2009)¹³⁾ 등은 전통 문법의 관점과 같이 관형어를 관형사나 체언의 관형화,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그 외에 관형구, 절 등으로 관형어의 구성성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관형어로 목적으로 토론하기 때문에 관형어를 구성하는 품사인 관형사, 체언에 의한 관형어, 용언에 의한 관형어를 간단하게 삼고 관형절, 구 등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같이 전통 문법과 큰 차이 없이 관형어의 범주를 다음 < 표 1 >¹⁴⁾과 같이 설정한다 (정희진 1999:16-19).



13) (고영근· 남기심, 2009)에서는 관형절은 한 문장의 종결형에 '-(고 하)는'이 붙거나, 관형절이 될 문장의 서술어가 관형형어미를 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미관계를 따라 -(고 하)는'을 붙는 동격관형절과 관형어어미를 통해 실현된 붙는 관계관형절로 나뉜다. 그리고 학교문법에서 관계 관형절을 '관계절'; 동격 관형절은 '보문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4) < 표1 >은 정희진(1999:17)에서 관형어의 종류와 형태를 참조하며 필자가 다시 정리했다.

〈표 1〉 한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분류표

한국어 관형어의 구성 성분	범주	하위 범주
	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체언	명사
		대명사
	용언	동사
		형용사
	구, 절	구, 절

한 체언 앞에 하나의 관형어만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둘 이상의 관형어가 겹쳐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은 관형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복합 관형어의 구성성분만 검토하고 둘 이상의 관형어가 겹쳐 쓰이는 경우 어떠한 관형어들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2.2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 성분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 성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구성 성분을 보려면 먼저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 성분을 봐야 한다. 중국어의 명사(구), 동사(구), 수사, 양사, 대사, 구별사, 의성사, 주술구, 개사구 등이 모두 관형어를 구성할 수 있다. 중국어 관형어를 구성하는 범주는 중국어 관형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은 다음 〈표 2〉와 같이 설정한다.

〈표 2〉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분류표¹⁵⁾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 성분	관형어의 성분	하위 범주
	명사성 성분	명사(구)
		수량사(구)
		인칭(의문, 지시)대사
	동사성 성분	동사(구)
		동량사구
	형용사성 성분	형용사(구)
		구별사
		의성사(구)
	기타	전치사구, 고용어구……

2.2.3 한·중 복합 관형어의 구성 성분의 대조

앞에서 살펴보았던 〈표 1〉과 〈표 2〉를 보면 한·중 관형어의 구성성분 비교표 〈표 3〉은 다음과 같다.

15) 안연령(2011)를 참고해서 정리했다.

〈표 3〉 한·중 관형어의 구성성분 비교표

한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
관형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수량사
각종관형구, 절	각종 구
	구별사, 의성사

〈표 3〉을 보면 두 관형어의 구성성분이 비슷한 성질의 성분이 대부분이며 한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에서는 관형사, 체언 관형어, 용언 관형어(동사, 형용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중국어 관형어의 구성성분에서는 크게 명사성 관형어, 형용사성 관형어, 동사성 관형어로 나누고 있다.

〈표 3〉을 통해서 한국어는 관형어 구성의 성분은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품사가 없다는 것이 한·중 관형어의 하나의 차이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수량을 의미한 관형어는 한국어에서 수사와 구분하여 수관형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수량사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형어 구성성분의 종류나 범주의 측면에서는 중국어 관형어에 비해서 한국어 관형어의 종류도 많고 그 사용 범주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관형어는 모두 서술어로 중심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범주는 관형어의 수식 범주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안연령(2011)은 한국어 관형어의 수식범주¹⁶⁾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16)(김기복1999:1)에서 한국어 관형어에서 모든 관형어의 수식 범위가 일정한 것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성된 주어, 주제어, 목적어 등 문장 성분.

중국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문장 성분은 다음과 같다.

주어, 주제어, 목적어, 명사 술어, 보어등 문장 성분.

셋 째, 한·중 관형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부속성분으로 생략은 가능하나 한국어의 관형어가 자립명사와 결합할 때 필수적이지 않지만 의존명사와 결합할 경우 관형어가 반드시 필수성분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한국어의 의존명사가 독립성이 없고 반드시 수관형사와 결합해야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국어 관형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넷 째,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의존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양사는 중첩적인 경우 단독으로 관형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수관형사는 단독으로 관형어로 쓰일 수는 있지만 중국어 수사어는 단독으로 관형어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다섯 째,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에 대한 연구는 국어보다는 인도, 유럽어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영어같은 경우는 수식어의 종류에 따라 어순이 정해져 있다. 똑같은 계층의 관형어가 겹치면 등위 접속사나 쉼표를 사용하여 그 어순을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국어의 수식 성분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최유택 2014). 또한 한국어는 교착어로 속함으로써 언어의 형태적으로 특징에 의한 한 유형이다. 고립어와 굴절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문장 내에서의 각 단어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은 아니다. 관형사는 명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나 대명사와 수사어는 결합이 불가능하고, 관형사형은 대명사와 결합이 가능하나 수사어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Ⅲ. 관형어 겹침 구조와 수식 구조

3.1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겹침 구조와 수식 구조

먼저 한국어 관형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관형어는 세 종류로 나뉘며 관형사, 명사 관형어, 용언 관형어로 분류를 할 수 있다.¹⁷⁾ 첫 번째로, 관형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어미나 조사를 취하지 않는다 (이익섭 2005: 24). 관형사의 경우 지시 관형사, 성질 관형사, 수량 관형사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제경미 2019)

- (1). 지시 관형사: 이 책이 그 책이다.
- (2). 성질 관형사: 철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 (3). 수량 관형사: 우리나라 총 인구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명사 관형어의 경우는 수식하는 명사와 별개로 관형사 그 자체로 문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명사 관형사와 대명사 관형사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 (4). 명사 관형사: 철수는 친구의 동생이다.
- (5). 대명사 관형사: 여기가 내 집이다.

세 번째로, 용언 관형어는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인 ‘-ㄴ, -는, -르, -던’ 등이 붙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용언 관형어는 동사 관형어, 형용사 관형어 그리고 존재사 관형어 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제시한다.

17) 남기삼·고영근(1993), 최윤택(2014) 등에서 관형어를 분류하고 있다.

- (6). 동사 관형어: 그녀는 반짝이는 신발을 바라보았다.
- (7). 형용사 관형어: 아파트에 큰 불이 났다.
- (8). 존재사 관형어: 숙제가 없는 날이다.

다음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종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다. 관형어는 다섯 종류로 나뉘며 관형사+관형사, 체언+체언, 관형사+체언 관형어, 용언+관형사, 체언 관형어+용언, 용언+용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¹⁸⁾ 이론적으로는 수식어가 여러 개 겹쳐 나타나는 일이 가능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57%가 Det(관형사)는 하나만 쓰이고 34%가 Det와 중심어(head) 사이에 하나의 꾸밈말이 오며, 7%가 둘 또는 그 이상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⁹⁾.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겹침 구조의 결합양상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밑에 <표 4>처럼 정리한다.²⁰⁾

18) 최유택(2014), 이정실(2019)등에서 복합 관형어를 분류하고 있다.

19) 김봉모(1992:169)에서 재인용.

20) 안연령(2011)에 참고해서 필자가 다시 정리한다.

〈표 4〉 한국어 관형어의 겹침 구조 분류표

결합 양상	겹침 유형
(1) 관형사 간의 겹침 구조	① 지시-수 ② 수-성상 ③ 지시-성상 ④ 지시-수-성상
(2)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① 명사 ₀₁ +명사 ₀₂ +명사 ② 명사의+명사 ₀ +명사 ③ 명사 ₁ 의+명사 ₂ 의+명사
(3) 관형사와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① 지시 관형사+체언 관형어 ② 수 관형사+체언 관형어 ③ 성상 관형사+체언 관형어
(4) 관형사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① 용언 관형어 + 지시 관형사 ② 용언 관형어 + 수 관형사 ③ 용언 관형어 + 성상 관형사
(5) 체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① 체언관형어와 동사의 겹침 ② 체언관형어와 형용사의 겹침
(6) 용언 간의 겹침 구조	① 동사+동사+중심어 ② 형용사+형용사+중심어 ③ 동사와 형용사의 겹침

복합 관형어의 수식 유형에 대한 연구는 최현배(1985)와 이길록(1977)에
서는 겹침 관형어의 수식구조에 대해 겹침 관형어가 각각 중심어를 꾸미는
것으로 보았으며, 김영송(1973:6)은 겹침 관형어가 각각 중심어를 꾸미는

경우와 한 관형어가 중심어를 꾸미는 경우와 한 관형어가 중심어를 꾸며 중심어로 되고 이 중심구를 다른 관형어가 꾸미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김봉모(1982:172)에서도 형용사 관형어는 각각 중심어를 수식하는 구조로 파악하여 같은 유형의 관형어가 겹치는 경우는 각각 중심어를 꾸미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기복(1999)에는 겹침 관형어의 수식구조는 관형어와 중심어의 어휘적 자질이나 속성 또는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통사적 관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유형은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로 제시하였고 또 한 유형은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로 제시하였다.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복합 관형어의 구조들에 대해 살펴보고 첫 번째 유형은 진정한 수식 구조라고 검토했다.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제 I 형:

[저 [큰 [소나무]]]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제 II 형:

[[새 [나라의]] 일꾼]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먼저 제 I 형은 관형어 서로 간에 수식하지 않고 후행 관형어(관형어2)가 직접 중심어를 수식하여 중심구를 형성하고 선행 관형어가 다시 그 뒤에 있는 중심구를 수식하는 수식 구조를 말한다. 예를 보면 제 I 형에서는 관형어 '소나무'와 우선하여 통사 관계를 가지는 관형어는 성상관형사 '큰 소나무'라는 중심어를 이루며, 이것을 지시관형사인 '저'가 꾸미는 구조를 이룬다. 즉 선행 관형어는 중심구를 꾸미고 후행 관형어는 중심어를 꾸민다. 이 같은 겹침 관형어 어순을 바른 어순으로 보며 수식 구조 또한 진정한 겹침 관형어 수식 구조로 보고자 하여 이유형을 제 I 형으로 표시했다. 다음 제 II 형은 선행 관형어가 후행 관형어를 수식하여 확대된 관형어가 중심어를 수식하는 구조를 말한다. 제 II 형의 예문을 보면 성상관형사 '새'는 체언 관형어 '나라의'와 통사 관계를 맺어 확대된 관형어로 되어 중심어'일

꾼'을 수식하는 수식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수식 구조를 제Ⅱ형으로 표시했다. 이상으로 살핀 겹침 관형어의 수식 구조는 후행 관형어가 중심 관형어와 직접 구성을 이루어 중심구를 형성하고 선행 관형어가 이 중심구를 수식하는 구조면 제Ⅰ형으로 보이고, 선행 관형어가 후행 관형어를 수식하여 확대된 관형어가 중심어를 수식하는 구조면 제Ⅱ형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는 앞에서 김기복(1999)에서 나온 제Ⅰ형과 제Ⅱ형의 수식 구조를 참고해서 복합 관형어의 결합 양상에 따라 겹침 유형마다 어떤 수식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겠다.

3.1.1 관형사와 관형사

첫 번째로, 김봉모(1992:190-196)에서는 '관형사+관형사'의 겹침은 중심어를 수식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에는 '지시-수량', '지시-성상', '수량-성상', '지시-수량-성상'의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논의하고 있으며 세 관형사가 동시에 실현될 때에는 '지시-수량-성상'이 기본 구조이며 미지칭 지시 관형사가 오거나 총칭 수량 관형사가 쓰이면 이들이 가장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제시하였다.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와 세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를 따라 각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가.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

(9) 지시-수량²¹⁾ (비총칭 수량관형사)

a. 저 두 사람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 두 저 사람

21) 여기서 '지시-수량'의 겹침구조의 수량 관형사는 비총칭 수량 관형사와 총칭 수량 관형사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c. * 두 # 저 사람

'지시-수량'의 겹침 현상은 (9)a처럼 지시 관형사가 수량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9)b.c처럼 어순이 바뀌면 비문이 된다. (9)a는 김기복(1999)에서 '지시-수량'의 겹침 구조에서는 지시 관형사가 선행하는데 수관형사는 중심구를 수식하고 새 중심구를 구성한 다음에 지시 관형사는 그 중심구를 수식하는 걸로 알 수 있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저 두 사람 → [저 [두 [사람]]]

(9)' 지시-수량 (총칭 수량관형사)

a. 저 모든 길

b. ? 모든 저 길

c. 모든 # 저 길

'지시-수량'의 겹침 현상은 총칭 수량관형사와 비총칭 수량관형사²²⁾에 따라 겹침 구조의 실현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총칭 수량관형사의 경우는 (9b,c)처럼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되는 반면 (9)'c처럼 휴지가 없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9)'c와 같이 휴지를 두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지시-수량'의 수식 구조에서는 지시관형사가 선행하는데 지시관형사는 중심구를 수식하고 수관형사는 중심어를 수식한다. 총칭 수량관형사와 비총칭 수량관형사와 상관없이 이 유형을 제 I 형에 속한다.

(10) 지시-성상

a. 그 새 책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22) 최윤택(20114)에서는 총칭 수량관형사는 부정지시 관형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총칭 수량관형사는 정지시 관형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 b. *새 그 책
- c. ? 새 # 그 책

'지시-성상'의 겹침 현상은 지시관형사가 성상관형사가 앞에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 같은 관형어의 겹침 구조에서는 후행 관형어가 직접 중심어를 수식하여 중심구를 형성하고 선행 관형어는 중심구를 수식하는 I 형의 수식구조를 가진다.

(11) 수량-성상

- a. 두 새 가방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 b. *새 두 가방
- c. ? 새 # 두 가방

'수량-성상'의 겹침 현상은 수량관형사가 성상관형사가 앞에 오는 것이 기본 어순이다. '지시-성상'의 겹침 현상처럼 어순을 바꾸면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 겹침 구조에서는 수관형사가 중심구를 수식하고 성상관형사가 중심어를 수식하는 I 형의 수식구조를 가진다.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를 종합적으로 보면 모두의 수식 구조는 제 I 형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나. 세 관형사가 동시에 실현될 경우

(12) 지시- 수량-성상

- a. 저 여러 새 책상
- b. [저 [여러 [새 [책상]]]] →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 c. 이 모든 흰 자동차
- d. [이 [모든 [흰 [자동차]]]] →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어]]]]

관형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관형사의 어순은 다음과 같이 ‘지시-수량-성상-N’의 어순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세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때 ‘지시-수량-성상’이 기본 구조이며 미지칭 지시관형사가 오거나 총칭 수량관형사가 쓰이면 이들이 가장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를 종합적으로 보면 수식 구조는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와 같이 제 I 형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성상관형어가 직접 중심어를 수식하여 중심구를 형성하고 수량관형어는 중심구를 수식하여 또 하나의 중심구를 형성하여 지시관형어가 새 중심구를 수식하는 제 I 형의 수식 구조를 가진다.

3.1.2 체언 관형어와 체언 관형어

두 번째로, ‘체언+체언’의 경우는 관형어 구조를 ‘N₀1+N₀2+N’, ‘N의+N₀+N’, ‘N1의+ N2의+ N’ 등 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13) N₀1+N₀2+N

a. 강남 신라 호텔

b. [강남 [신라 [호텔]]]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c. * 신라 강남 호텔

a. 시골 고향 선배

b. [[시골 [고향]] 선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c. [고향 [시골 [선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N₀1+N₀2+N’의 경우에는 N1와N2의 긴밀성이 강해서 자리 도치하면 (13c)처럼 비문이 되거나 수식 구조가 달라진다. 수식 유형은 제 I 형([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으로 볼 수도 있지만 (13b,c)의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Ⅱ형으로 볼 수도 있다.

(14) N의+N₀+N

a. 궁동의 기사 식당

b. [궁동의 [기사 [식당]]]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c. * 기사 궁동의 식당

(14)' a. 언니의 철수 이야기

b. [언니의 [철수 이야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c. [[철수 [언니의]] 이야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자리 도치하면 (14c)처럼 비문이 되거나 수식 구조가 달라진다. 수식 유형은(14b)처럼 제Ⅰ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14)'c처럼 제Ⅱ형으로 볼 수도 있다.

(15) N₁의+ N₂의+ N

1). [[영주의 [동생의]] 친구]→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2). a. [그의 [언니의 [이야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언니의 [그의]] 이야기]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3). a. [총무공의 [거북선의 [제작]]]→[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 거북선의 총무공의 제작

자리바꿈하면 3b)처럼 비문이 되거나 (나b)처럼 대명사일 경우는 의미나 수식 구조가 달라진다. 수식 유형은 제Ⅰ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Ⅱ형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선행 관형어가 후행 관형어를 우선 수식하여 확대된 관형어가 중심어를 수식하는 제Ⅱ형으로 많이 나타난다.

3.1.3 관형사와 체언 관형어

셋 번째로, '관형사+체언'의 경우는 관형어 구조를 '지시 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수 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성상 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등 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16) 지시 관형사+체언

- a. 이 도시의 문화
- b. [이 [도시의 [문화]]]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 c. [도시의 [이 [문화]]]

'Det-N1의-N2'의 어순에서 (16c)의 'N1의-Det-N2'로 어순이 바뀌면 문장이 성립되기는 하지만 수식구조와 의미구조가 모두 바뀐다.

(17) 수 관형사+체언

- a. 모든 도시의 문화
- b. [모든 [도시의 [문화]]]
- c. [도시의 [모든 문화]]

(18) 성상 관형사+체언

- a. 새 나라의 어린이
- b. [새 [나라의 [어린이]]]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 c. [[새 [나라의]] 어린이]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한편 김기복(1999:102)에서 '관형사+체언 관형어' 구성에서 관형어의 어순이 바뀌어도 자연스러운 구성이 된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는 자연스러운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 (19) a. 새 나라의 어린이
b. ?? 나라의 새 어린이
- (20) a. 그 중학생의 아버지
b. ? 중학생의 그 아버지

다음으로 'Det'와 'N1Ø'가 겹치면 'Det-N1Ø-N2'의 어순으로 배열되며 따라서 'Det'는 중심구를 꾸민다.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Det-N1의 -N2' 구조보다 더 생산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송효빈 1999:31).

- a. [새 [신라 [호텔]]]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신라 새 호텔
- a. [어느 [영국 [신사]]]
b. ?? 영국 어느 신사
- a. [[헌 [책]] 장수]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책 헌 장수

수식 유형은 제 I 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 II 형으로 볼 수도 있다.

3.1.4 관형사와 용언 관형어

넷 번째로, '용언 관형어+관형사'의 경우는 '용언 관형어+지시 관형사+피수식어', '용언 관형어+수 관형사+피수식어', '용언 관형어+성상 관형어+피수식어' 등 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용언 관형어+[관형사+피수식어]] [VD+[Det+N]]
→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21) 용언 + 지시

- a.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모습
- b.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모습
- a. 멋진 어느 집
- b. [멋진 [어느 [집]]]
- a. 달리는 그 사람
- b. [달리는 [그 [사람]]]

용언 관형어와 지시관형사가 결합할 때 용언관형어는 중심구를 수식하고 지시관형사는 중심어를 수식하여 제 I 형으로 본다.

(22) 용언 + 수

- a. 달리는 두 사람
- b. [달리는 [두 [사람]]]

용언 관형어와 수관형사가 결합할 때 용언관형어는 중심구를 수식하고 수관형사는 중심어를 수식하여 제 I 형으로 본다.

(23) 용언 + 성상

- a. 귀여운 새 사람
- b. [귀여운 [새 [사람]]]

용언 관형어와 성상관형사가 결합할 때 용언관형어는 중심구를 수식하고 성상관형사는 중심어를 수식하여 제 I 형으로 본다.

[관형사+[용언 관형어+피수식어]]

'용언+관형사'의 겹침 구조가 도치되면 '관형사 + 용언' '([Det+[VD+N]])' 구성이 되는데 이때 용언의 관형사형이 동사나 형용사냐에 따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도 하고 어색하거나 비문이 되기도 한

다.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24)a. 그 멋진 집

b. [그 [멋진 [집]]]

a. 어느 달리는 사람

b. [어느 [달리는 [사람]]]

a. 한 멋진 사람

b. *한 멋진 사람

a. 여러 멋진 사람

b. ?여러 멋진 사람

'용언 관형어+지시 관형사+피수식어'의 경우나 아니면 '지시 관형사+용언 관형어+피수식어'의 경우에는 모두 제 I 형으로 볼 수 있다.

3.1.5 체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다섯 번째로, '체언+용언'의 경우는 '체언 관형어+용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체언 관형어'의 두 배열 순서가 모두 가능하다. '체언 관형어+동사', '체언 관형어+형용사'의 두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25) 체언 + 동사

a.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b.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 [체언 관형어 + 동사 +[피수식어]]

a. 학생의 할 일

b. [학생의 할 [일]]

(25)' 동사 + 체언

a. 떠드는 # 아이들의 소리

- b.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 [동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c.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 → [동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26) 체언 + 형용사

- a. 아이들의 예쁜 얼굴
 b. [아이들의 [예쁜 [얼굴]]] → [체언 관형어+[형용사+[피수식어]]]

(26)' 형용사 + 체언

- a. 예쁜 아이들의 얼굴
 b. [예쁜 아이들의 [얼굴]] → [형용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c. [예쁜 [아이들의 얼굴]] → [형용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먼저 (26) '체언 + 형용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선호 2011:178)에서는 (26)의 '체언 + 형용사(N1의-VD-N2)' 구성이나 (26)'의 '형용사 + 체언 (VD-N1의-N2)' 구성은 둘 다 통사적 제약은 없지만 (26)와 달리 (26)'에서는 의미적 중의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26)에서 '아이들의 예쁜 얼굴'은 '아이들의'가 '예쁜 얼굴'을 수식한다. 그러나 (26'a)의 '예쁜 아이들의 얼굴'은 '예쁜'이 (26'b)처럼 '아이들이'만 수식할 수도 있고 (26'c)처럼 '아이들의 얼굴'을 수식할 수도 있다.

다음 (25) '체언 + 동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25)에서는 'N1의+VD'가 중심어(N2)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5a)는 다음의 (25a)와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 (27) a.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b. 학생의 할 일 → 학생이 할 일

이와 관련하여 최현배 (1971:771)에서는 “딸림마디의 임자말 가운데 더러 매김자리 토씨 ‘의’가 임자자리 토씨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

고, 허웅(1974:47)에서도 ‘나의 살던 고향’에서 ‘의’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고 서술어의 주어로 쓰여 ‘내가 살던 고향’의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김형기(1964:6)에서는 ‘국민의 할 바’에서 ‘국민의’는 주어가 아니라 관형어(체언의 관형격)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유탉2014)

여기서 (27a)가 성립되는 경우는 (27)처럼 ‘N1의+동사+N2’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29b)처럼 ‘N1의+형용사+N2’일 경우에는 다음(29a,b))에서 보듯이 ‘N1의→N2이/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a. 아내의 아름다운 글씨 → *아내가 아름다운 글씨

따라서 ‘체언의+용언+피수식어(N1의-VD-N2)’의 구조를 다음 (27)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9) a. ‘N1의+동사+N2’ → ‘N1이/가+동사+N2’
b. ‘N1의+형용사+N2’ ⇏ ‘N1이/가+형용사+N2’

‘체언+용언’ 복합 관형어 구조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최유탉 2014).

a. ‘체언+용언’의 복합 구조는 ‘N1의+동사+N2 → N1이/가+동사+N2’와 ‘N1의+형용사+N2 ⇏ N1이/가+형용사+N2’두 가지의 수식 구조가 가능하다.

b. ‘N1의+용언’의 복합 구조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의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면 통사적 제약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용언+N1의 +N2’로 도치되면 의미가 중의적이다.

마지막으로 수식 유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 I 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Ⅱ형으로 볼 수도 있다.



3.1.6 용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여섯 번째로, '용언+용언'의 경우는 관형어 겹침 구조를 용언의 하위 범주인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서 이에 대응하는 분류는 '동사+동사', '형용사+형용사', '동사+형용사'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30) 동사+동사

- a. 거리에서 뒹굴고 노는 꼬마들
- b. 거리에서 [[뒹굴고 노는] 꼬마들] → [[동사+동사]+피수식어]
- c. *거리에서 뒹구는 노는 꼬마들

동사의 관형사형은 피수식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므로 (30c)와 같이 두 개의 관형사형이 함께 쓰이지 못한다(송효빈 1999:79).

(30c)의 '*뒹구는 노는'은 둘 다 동사로서 동사의 관형사형끼리 겹칠 경우 동일한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어끼리는 쓰이면 비문이 된다. 이 경우 (30b)처럼 연결어미 '-고(-면서, -며)' 등을 사용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1) 형용사+형용사

- a. 아름다운 젊은 여인
- b. [[아름다운 젊은] 여인]
- c. [[아름다운 [젊은] [여인]]] → [[형용사+[형용사]+[피수식어]]]
- d. 아름다운# 젊은 여인

(31a)의 '여인'은 아름다우면서도 젊은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지만 (30c)의 '*뒹구는 노는'은 둘 다 동사로서 동사의 관형사형끼리 겹칠 경우 동일한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어끼리는 쓰이지 않으므로 비문이 된다. 이 경우에는 연결어미 '-면서, -며, (30a,b)처럼 -고' 등을 사용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32) 동사+형용사

- a. 가족들이 기다릴 새로운 집
- b. *가족들이 새로운 기다릴 집

‘동사+형용사’의 어순은 도치하면 비문이 된다. ‘형용사+동사’의 형태는 없다는 이뉴는 용언 관형어의 겹침은 ‘동사-형용사’의 차례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또한 자연스러운 수식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김봉모 1992:174). (32b)처럼 동사는 피수식어의 행위나 동작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피수식어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가 동시에 실현될 경우에는 형용사가 중심어에 더 근접하여 중심어를 수식하는 현상이 생긴다. 즉 ‘형용사+동사’의 형태는 없다.

수식 유형은 제Ⅰ형([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Ⅱ형([[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으로 볼 수도 있다.

3.2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

먼저 중국어 관형어의 성분에 따라 하위범주랑 그의 예문을 다음〈표 5〉와 같이 정리한다.

〈표 5〉 중국어 관형어²³⁾

관형어의 성분	하위 범주		예
명사성 성분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기와집 (磚瓦房)
			중국 친구 (中國朋友)
	수량사	관형구	천안문 광장 (天安門廣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두통의 편지 (兩封信)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한 차례 강연 (一場演講)
	대사	단체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 학교 (咱們學校)
			모교 농구팀 (母校籃球隊)
		‘這’‘那’가 수사, 양사를 수식하는 경우	이 수준 (這水平)
		‘什么’‘多少’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무슨 출판사 (什麼出版社)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나의 형 (我哥哥)
동사성 성분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	노동인민 (勞動人民)
			기념탑 (紀念塔)
형용사 성분	형용사	단은절인 경우	방안 (房里)
		이은절이 방위에 쓰이는 경우	책꽂이 위 (書架上)

23) 강운옥(2004 : 56)와 위의 〈표2〉를 참고해서 필자가 정리했다.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유형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여전히 하나의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우며 范曉(2002: 60-66)에서는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유형을 遞加式, 頓加式, 列加式, 交叉式 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劉月華(2001:484-499)의 유형분류를 참고해서 제시하였다.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并列式多項定語),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遞加式多項定語),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套迭式多項定語)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에 대해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2.1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并列式多項定語)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보통 같은 품사 자질의 어구 몇 개가 관형어로 쓰여 중심어 하나를 병렬적으로 수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 관형어는 서로 병렬관계이다. 보통 몇 개의 관형어가 연합하고 중심어를 수식하는 연합 수식구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중심어를 수식하는 개별 수식구조로 나눌 수 있다(劉月華,2005). 연합 수식 구조는 앞에 김기복(1999)에서의 한국어 관형어 II형 수식 구조와 같으므로 진정한 겹침 구조로 보기 힘들다. 개별 수식 구조는 한국어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의 형용사끼리 겹치는 수식 구조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33) 연합 수식구조

a.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개별 수식 구조(한국어에서의 형용사끼리 겹치는 수식 구조)

b.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연합 수식구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개별 수식구조의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연합 수식구조:

(34) a. 學術工作者必須報謙虛、謹慎、嚴肅、認真的態度.

b. 學術工作者必須報[[謙虛、謹慎、嚴肅、認真]的]態度.]

(학술인은 반드시 겸손하고 신중하며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를 답해야 한다.)

(35) a. 人們一向把她們寫成怪异、孤僻、冷漠、甚至是殘忍、狠毒、貪婪的人.

b. 人們一向把她們寫成[[怪异、孤僻、冷漠、甚至是殘忍、狠毒、貪婪[的人]].

(사람들은 줄곧 그녀들을 괴상하고 괴팍하고 냉담하며 심지어는 이렇게 잔인하고 독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썼다.)

개별 수식구조:

(36) a. 調整工商業和農業、教育的投資比例.

b. 調整[[[工商業]和[農業、教育]的]投資比例]

(상공업과 농업, 교육에 대한 투자비례를 조정한다.)

(37) a. 他是一位堅強的永不氣餒的勇士.

b. 他是[一位[[堅強的][永不氣餒的]]勇士]]

(그는 영원히 사기충천한 건강한 용사이다.)(이정실)

위의 첫 번째 예문(34)에서 謙虛、謹慎、嚴肅、認真的 네 개의 정어(定語)는 병렬관계로, 주성분과 종속성분의 구분 없이 뒤에 있는 중심어인 '태도'를 그대로 수식한다. 두 번째 예문(35)중 怪异、孤僻、冷漠、殘忍、狠毒

毒、貪婪 다섯 관형어는 서로 수식하지 않고 병렬관계다. (36a)에서는 ‘상공업’, ‘농업’, ‘교육’의 관형어가 모두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한다. 이렇게 몇 개 이상의 관형어가 연합하여 하나의 피수식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를 병렬관계 다항 관형어 연합 수식구조라고 한다. (37)에서 ‘堅強的’, ‘毫不气馁的’는 각각 개별적으로 피수식어 ‘勇士’를 수식하는 병렬관계 복합 관형어 개별 수식구조이다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순 문제 가장 다루기 복잡한 복합 관형어는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의 구조이다. 상대적으로 병렬관계의 복합관형어의 어순은 규칙이 모두 분명하고 간단하다,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의 어순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객관적인 사물의 발생, 발전, 종료의 과정에 따라 배열한다. 이런 경우에는, 동사 혹은 동사구로 관형어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합 관형어에서 앞의 관형어는 하나의 변화나 특징을 많이 나타내는데, 바로 뒤의 관형어가 나타내는 변화의 전제조건과 기초가 되는 것이고, 뒤의 변화나 특징은 앞의 변화와 특징의 결과 또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중간의 과정이 사리에 맞고 논리성이 매우 강하므로 자리를 바꿀 수 없다.

(38). 凡是按照中央的方針政策去做的, 都取得了調動人的積極性, 提高工作效率, 促進生產力發展的成果.

(무릇 중앙의 방침과 정책에 따라 행한 것들은 모두 사람을 동원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의 이 예문을 보면 각 관형어어 사이에 배열 순서는 시간상의 선후를 치중한다. 예를 들면: 먼저‘調動人的積極性’, 그 다음‘提高工作效率’, 마지

막으로'促進生産力發展'이 관형어들은 차례로 나아가는 관계가 있고, 논리적으로 사물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선후가 있다.

두 번째,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과 관찰 순서로 배열한다. 이렇게 배열해 낸 관형어는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여실히 반영한 선후 인지 순서입니다.

(39). 頭戴高挺紗帽, 身穿長袍, 手持團扇的行司邊唱邊跳, 敲打香尺, 招呼力士上場

(고깔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 단선 부채를 든 행사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향자를 두드리며, 장사에게 등장하라고 불렀다.)

사람의 외모에 대한 인식의 법칙을 들어보면 보통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높은데에서부터 낮은 곳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사람에게 두면 어떤 모자, 어떤 색의 머리, 어떤 화장을 하고, 이어서 상의, 허리띠, 그리고 바지에 신경써야 신발에 신경쓰게 된다. 이 밖에도 사람들은 정적인 묘사에 의해 관찰되는 사물을 관찰한 후 동적인 동작이나 표정을 세밀하게 부각시키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할 때 항상적인 이미지를 먼저 인식하고 자신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하는 동적인 동작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셋 번째, 일정한 음절, 구조 법칙에 따라 배열한다. 복합 관형어 중에는 관형어와 관형어의 사이에 구조가 비슷하면 두 항목을 함께 놓는 데 더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음성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치밀하고 읽기가 매끄럽고 유창하며 듣기 좋다.

(40). 有人對有創新, 有能力, 不盲從, 愛動腦筋, 敢提意見的知識分子特別看不慣, 說他們是驕傲自大

(어떤 사람은 창조적이고 능력 있으며 맹종하지 않으며, 머리를 잘 굴리며, 의견을 제시하는 지식인에 대해 그들은 교만하고 잘난 척한다고 말하는 것을 특히 못마땅하게 여긴다.)

예(40)에서 '有創新, 有能力, 不盲從'는 일반적으로 같이 나타나며, '愛動腦筋, 敢提意見'는 더 쉽게 같이 나타난다. 음절, 구조 법칙의 원인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넷 번째. 속칭 관습어순으로 정렬한다. 일상 생활에는 허점이 있다. 사람들의 일상에는 이렇게 약속된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언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爸爸媽媽(아빠 엄마)' '兄弟姐妹(형제자매)' '弟弟妹妹(남동생 여동생)' '哥哥姐姐(형언니)' '爺爺奶奶(할아버지 할머니)' '姥姥姥爷(할아버지 할머니)' '叔叔阿姨(외삼촌 외숙모)'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등 속된 언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41). 如果過量的使用和濫用食物的添加劑, 是造成青少年兒童各種非急性的, 食源性的疾病的重要原因.

(만약 음식의 첨가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한다면, 청소년 아동의 각종 비급성, 식원성 질병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41)에 속칭 '青少年兒童'는 일반적으로 관습어순으로 배열한다. 어순을 도치하면 표현이 어색해진다.

다섯 번째. 위아래 문장의 어경에 따라 어순을 배열한다. 상·하 어경은 관형어 어순의 배열도 일정한 제약 작용이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구조에서 어의에 대한 대응 요구이다.

(42). 老師和同學在這裡親密地過着教學和學習的生活

(선생님과 학생들은 여기에서 친밀하게 가르치고 공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예(42)에 '老師和同學'와 '教學和學習'는 서로 대응하고 위아래 문장의 어경에 따라 어순을 배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遞加式多項定語)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몇 개의 묘사성 관형어로 구성되기도 하고 묘사성 관형어가 제한성 관형어와 같이 구성되기도 한다. 그의 수식관계는 다음 (43)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형어 서로 간에 수식하지 않고 보통 뒤에 위치한 관형어가 먼저 중심어를 수식하여 중심구(정중단어)를 구성하고 순서에 따라 선행하는 관형어를 다시 그 뒤에 있는 중심구를 수식하는 수식구조이다(劉月華 2005:65).

(43) 관형어 두 개의 경우:

a.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 두 개 이상의 경우:

b.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의 구조는 중심어 앞에 두 개 관형어가 차례로 정렬되는 것과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차례로 정렬되는 것이랑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 구조가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겹침 구조 제 I 형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인다.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4) a. 我買了一件藍色的連衣裙
 b. 我買了[一件[藍色的[連衣裙]]]
 (난 파란색 원피스를 하나 샀다.)
- (45) a. 所有這些旧汽車
 b. 所有[這些[旧[汽車]]]
 (이 모든 흰 자동차.)

(44)에서 ‘藍色的’이 먼저 ‘連衣裙’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一件’이 ‘藍色的連衣裙’을 다시 수식한다. (42)는 좀 복잡한 복합 관형어 구성이다. 먼저 ‘旧’이 ‘汽車’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這些’이 다시 ‘旧汽車’을 수식하고, 또한 ‘所有’가 다시 ‘這些旧汽車’을 수식한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관형어가 순서에 따라 뒤에 오는 중심구를 수식하는 구조를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라고 한다.

중국어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보통 같은 품사 자질의 어구 몇 개가 관형어로 쓰여 중심어 하나를 병렬적으로 수식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순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부가관계 복합 관형어와 혼합관계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으며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비교적 복잡하고 각 관형어의 위치도 비교적 일정하며 어순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다.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 중에서 제한적인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묘사적인 관형어의 앞에 위치한다. 위에서 밝힌 어순에 따라 부가관계 복합 관형어의 기본 어순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제한성 관형어의 어순:

- ① 소속관계의 명사나 대사
- ② 처소사와 시간사
- ③ 수량사구
- ④ 제한기능을 하는 동사성어구(주술 구, 동사구, 전치사구)

묘사성 관형어의 어순:

- ⑤ 주술구, 동사(구), 개사구
- ⑥ 묘사기능을 하는 어구(주술구, 동사구, 전치사구)
- ⑦ 수량구
- ⑧ 형용사(구) 및 기타 묘사성 구
- ⑨ '的'를 필요하지 않는 형용사와 묘사성 명사

(46) a. 媽媽的那个 漂亮的 手表丢了.

a'. 우리 엄마의 그 예쁜 시계가 사라졌다.

b. 漂亮的 媽媽的那个 手表丢了

b'. 예쁜 우리 엄마의 그 시계가 사라졌다.

(47) a. 學校圖書館里 珍貴的 圖書有很多.

a'. 학교 도서관에 진귀한 도서들이 많다.

b. 珍貴的 學校圖書館里 圖書有很多.

b'. 진귀한 학교 도서관에 도서들이 많다.

한 수식 구조에서 제한성 관형어와 묘사성 관형어가 겹치면 일반적으로 묘사성 관형어가 제한성 관형어의 뒤에 위치한다. 예문(46,47 a)에서 媽媽的那个와學校圖書館里는 제한성 관형어이고, 漂亮的와珍貴的는 묘사성 관형어이며, 제한성 관형어가 앞에 위치하고 묘사성 관형어는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7,47 b)처럼 위치 도치하면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그중에 수량구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다른 관형어의 구성성분의 어순보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비교적 유동적이다. 예를 들면 앞쪽, 뒤쪽에 나타날 수 있다.

(48) a. 我讀過的 一本 書

a'. 내가 읽어본 적 있는 책.

- b. 一本 我讀過的 書
 b'. 내가 읽어본 적 있는 책.
- (49) a. 一款 新上市的 汽車
 a'. 새로 출시된 자동차
 b. 新上市的 一款 汽車
 b'. 새로 출시된 자동차.

위의 예문 (48)(49)를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배열 원칙에 따라하지만, 때로는 수량구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어순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에서 각 관형어의 위치는 보통 중심어의 밀도 정도와 관계가 있고 중심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심어에 가깝고, 반대로 말하면 중심어와 멀어진다. 소속관계의 명사나 대사, 표시간, 처소사와 시간사, 수량사구. 이 몇 가지 관형어들은 중심어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의미적으로 보면 중심어가 나타내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중심어의 내부 특징과 성질을 다루지 않으며, 다른 관형어 유형에 비해 중심어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 어떤 묘사성 관형어는 주술구, 동사(구), 개사구, 수량구, 형용사(구) 및 기타 묘사성구등 일반적으로 중심어 자체가 대표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수식과 묘사가 다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중심어가 의미하는 사물을 시공(시간과 공간)이나 수량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의 상태, 특징, 성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어 중심어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3.2.3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부가관계의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관형어 두 개 다 포함 돼 있는 복합 관형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0) a. 風吹來 [[[外面 鼓樂手] [唢呐 和 笛子]] 的 [聲音]]

a' 바람은 밖에 있는 악사의 태평소와 피리 소리를 실어다 주었다

(50)에서 '外面'와 '鼓樂手'는 병렬적으로 수식하고, '唢呐' 和 '笛子'도 병렬적으로 수식하고, 그 다음에는 '外面鼓樂手'는 선행 관형어로 '唢呐 和 笛子'를 수식한다. 마지막으로 '外面鼓樂手唢呐和笛子'는 다시 관형어로 '聲音'를 수식한다.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는 부가관계의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관형어 두 개 다 포함 돼 있는 복합 관형어이기 때문에 어순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3.3 한 중 복합 관형어 수식 구조의 대조

3.3.1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

다음은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는 제Ⅰ형과 제Ⅱ형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제Ⅰ형: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제Ⅱ형: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3.3.2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

먼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는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그리고 혼합 관계의 관형어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연합 수식 구조

a.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개별 수식 구조

b.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2.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 (a和b只是數量上的差別)

a.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

b.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피수식어]]]

3.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관형어4+피수식어

[[[관형어1+관형어2]+[관형어3+관형어4]]+피수식어]

3.3.3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구조의 대조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는 진정 구조인 제 I 형과 제 II 형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의 수식 관계에 대해 다음〈표6〉과 같이 정리한다.

제 I 형([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은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제 II 형([[관형어1+[관형어2]]+피수식어])은 중국어에서 병렬관계 안에 연합 수식 구조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표 6〉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대응표

한국어	중국어
제 I 형	부가관계
제 II 형	병렬관계(연합)

제3장의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배열관계에 따라 수식 구조의 유형을 대조하는 관계에 대해 정리한 것 다음〈표7〉과 같이 제시한다.

〈표 7〉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유형

결합 양상	유형
관형사 + 관형사	I 형
체언 + 체언	I 형 , II 형
관형사 + 체언	I 형 , II 형
관형사 + 용언	I 형
체언 + 용언	I 형 , II 형
용언 + 용언	I 형 , II 형

첫 번째, 관형사 간의 수식 구조에는 두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랑 세 관형사가 동시에 겹칠 경우와 모두 제 I 형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중

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에는 '체언+체언'의 경우는 관형어 구조를 'N₀₁+N₀₂+N', 'N의+N₀+N', 'N1의+ N2의+ N'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세가지의 수식 유형은 제 I 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 II 형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관형사와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에는 (2와 같다.) '관형사+체언'의 경우는 관형어 구조를 '지시 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수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성상 관형사+체언 관형어+피수식어'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수식 유형은 제 I 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 II 형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네 번째, 관형사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용언 관형어+관형사'의 경우는 '용언 관형어+지시 관형사+피수식어', '용언 관형어+수관형사+피수식어', '용언 관형어+성상 관형어+피수식어' 등 세 가지로 나뉘며 그 형태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나타난다. '용언 관형어+지시 관형사+피수식어'의 경우나 아니면 '지시 관형사+용언 관형어+피수식어'의 경우에는 모두 제 I 형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다섯 번째 체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는 '체언+용언'의 경우는 '체언 관형어+용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체언 관형어'의 두 배열 순서가 모두 가능하다. '체언 관형어+동사', '체언 관형어+형용사'의 두 가지로 나뉘며 제 I 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 II 형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여섯 번째, 용언 간의 겹침 구조는 '용언+용언'의 경우는 '관형어 겹침 구조를 용언의 하위 범주인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서 이에 대응하는 분류는 '동사+동사', '형용사+형용사', '동사+형용사' 세 가지로 나뉘며 제 I 형으

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리 도치하면 제Ⅱ형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어에서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표 8〉 결합 양상에 따라 한·중 수식 구조의 대비표

결합 양상	한국어 수식 구조의 유형	중국어 수식 구조의 유형
관형사 + 관형사	I 형	부가관계
체언 + 체언	I 형 , II 형	부가관계, 병렬관계(연합)
관형사 + 체언	I 형 , II 형	부가관계, 병렬관계(연합)
관형사 + 용언	I 형	부가관계
체언 + 용언	I 형 , II 형	부가관계, 병렬관계(연합)
용언 + 용언	I 형 , II 형	부가관계, 병렬관계(연합)

IV. 한·중 복합 관형어 사용 오류분석

4.1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장에서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수행한 번역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과제에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넘는 topik 중고급 단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정보가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1) 조사대상

<표 9> 참여자의 정보

번호	나이	성별	topik 등급	거주 시간
1	21	여	4급	2년
2	25	여	4급	4년
3	26	남	5급	3년
4	28	여	5급	3년
5	23	여	4급	2년
6	25	남	5급	4년
7	25	남	4급	3년
8	27	남	5급	5년
9	26	여	4급	3년
10	30	남	4급	2년

본 연구에서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복합 관형어가 들어가는 한국어 문장을 제시해 주고 중국어로 번역하라는 과제를 취하며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복합 관형어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총 10문항을 선택했다.

(2) 설문지 구성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1.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위치 고찰

앞 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한·중 복합 관형어 번역할 때 어순이 다른 대표적인 문장을 5문항을 다음 <표10>과 선택했다.

<표 10> 설문 문항

1. 그 오늘 활동은 취소하도록 하자.	今天的那个活动取消吧！
2. 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	一位大学教授说
3.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모습	她唱歌的模样
4. 기어가는 한 마리의 벌레	一只爬行的虫子
5. 환호하는 관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	听见了观众们的欢呼声

(3) 실험 절차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시 나타나는 사용양상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설문지를 피험자에게 나누어주고 5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하라고 하였다.

4.2 오류 분석

중국인 피험자들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각 문장의 나타나는 오류율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 11〉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번역 양상

순위	결합 양상	문장	오류율
1	지시 관형사 + 체언 관형어	① 그 오늘 활동은 취소하도록 하자.	20%
2	수 관형사 + 체언관형어	② 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	80%
3	용언+ 지시 관형사	③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모습	40%
4	용언 + 수 관형사	④ 기어가는 한 마리의 벌레.	40%
5	체언 + 용언	⑤ 환호하는 관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	60%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시 나타나는 오류 빈도를 보면 "수 관형사 + 체언관형어"의 오류율은 제일 높게 80%로 나타났고 "체언 + 용언"의 오류율은 60%로 나타났다. "용언+ 지시 관형사"와 "용언 + 수 관

형사”의 오율률은 40%로 똑같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지시 관형사 +체언 관형어”의 오율률은 20%를 차지하였다.

김봉모(1992:194-195)에서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다.

- ① 명사 의
- ② 동사
- ③ 형용사
- ④ 지시관형사
- ⑤ 수량관형사
- ⑥ 성상관형사
- ⑦ 명사∅
- ⑧ 중심어

朱德熙 (1982)에서는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 다음 과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다.

제한성 관형어의 어순:

- ① 소속관계의 명사나 대사
- ② 처소사와 시간사
- ③ 수량사구
- ④ 제한기능을 하는 동사성어구(주술 구, 동사구, 전치사구)

묘사성 관형어의 어순:

- ⑤ 주술구, 동사(구), 개사구
- ⑥ 묘사기능을 하는 어구(주술구, 동사구, 전치사구)
- ⑦ 수량구
- ⑧ 형용사(구) 및 기타 묘사성 구
- ⑨ '的'를 필요하지 않는 형용사와 묘사성 명사

예문'① 그 오늘 활동은 취소하도록 하자.'를 보면 수식 구조 ”지시 관형

사+체언 관형어”의 겹침구조이다.”오늘”이 먼저 ”활동”을 수식하고, 다음 ”그”가 ”오늘 활동”를 수식하는 구조이며 제 I 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어순으로 보면 ”지시 관형사 - 시간명사 - 중심어”이다. 중국어에서는 지시대사인 지시 관형사와 시간 명사 다 제한성 관형어에 속하고 시간명사가 지시대사보다 범위 더 크기 때문에 시간명사 ”오늘”은 지시 대사 ”그”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문'② 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을 보면 수식 구조 ”수 관형사 +체언 관형어”의 겹침구조이다. ”한”이 먼저 ”교수”를 수식하고, ”대학교”가 ”한 교수”를 수식하는 구조이며 제 I 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 명사가 피수식어의 성질이나 직위 등을 표현할 때에는 수량구보다 중심어에 가깝다. 學校는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그 교수가 ”어떠한 교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수량사의 뒤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 복합관형어에서는 소속관계의 명사는 수량구보다 중심어에 멀리 나타난다.

예문 '③ 노래를 부르는 그 여자 모습'을 보면 수식 구조 ”용언 관형어+지시 관형사”의 겹침 구조이다. 중국어에서 지시대사는 제한성 관형어에 속하고 동사는 묘사하는 묘사성 관형어에 속한다. 제한성 관형어는 묘사하는 묘사성 관형어에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시대사가 동사 앞에 오는 것이 바른 어순이다.

예문'④ 기어가는 한 마리의 벌레'보면 수식 구조 ”용언 +수 관형사”의 겹침 구조이다. 한국어 문장의 어순은 '동사-수 관형사-중심어'이다.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의 어순은 '수사-동사-중심어'이다. 중국어에서 수사는 제한성 관형어에 속한다. 동사는 묘사성 관형어에 속한다. 제한성 관형어는 묘사하는 묘사성 관형어에 앞에 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사가 동사 앞에 오는 것이 바른 어순이다.

예문⑤ 환호하는 관중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보면 수식 구조 "체언 관형어+용언 관형어"의 겹침 구조이다. 한국어 문장의 어순은 '동사-체언 관형사-중심어'이다. 중국어로 번역된 문장의 어순은 '명사-동사-중심어'이다. "관중들"은 소속관계를 나타내는 제한성 관형어에 속한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동사 앞에 위치해야 한다.

예문①~⑤의 번역 양상을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 다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언순보다 더 자유롭다. 중국어에서는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제한성 관형어가 있으면 앞에서 위치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없다. 그리고 또하나의 발견점은 관형사가 들어가는 복합 관형어 문장은 어순이 다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한·중 양국에서 관형어 대비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한·중 복합 관형어 대조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 구조를 비교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자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므로, 그 문장은 구조도 다르다. 복합 관형어 성분은 문장에서 표현 형식과 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로서 한·중 복합 관형어의 차이를 알아야 한국어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앞으로 문장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관형어를 사용할 때 오류를 줄이고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한·중 복합 관형어의 정의, 특징, 수식 유형, 그리고 수식 구조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하였다. 이제 앞에서 논의한 한·중 복합 관형어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복합 관형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한·중 복합 관형어의 정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2.1절에서는 정의의 공통점은 우선 두 관형어가 모두 수식어이며 수식을 받은 중심어는 모두 명사성 성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한·중 관형어가 두 언어에서 모두 문장의 부속성분으로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이지 않는 문장 성분이라고 살펴보았다. 차이점은 먼저 명칭은 중국어에서는 '정어(定語)'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합 관형어는 다항정어(多項定語)라고 부른다. 우리말에서는 '관형사(冠形辭)'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어의 관형어는 대부분 관형어 후치로 표현되지만 한국어 관형어는 주로 전치(前置)로 채택한다.

2.2절에서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는 관형어 구성의 성분은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품사가 없

다는 것이 한·중 관형어의 하나의 차이점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수량을 의미한 관형어는 한국어에서 수사와 구분하여 수관형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수량사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형어 구성성분의 종류나 범주의 측면에서는 중국어 관형어에 비해서 한국어 관형어의 종류도 많고 그 사용 범주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수식 범주는 다른다고 본다.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범주는 명사, 대명사, 수사로 구성된 주어, 주제어, 목적어 등 문장 성분. 중국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문장 성분은 주어, 주제어, 목적어, 명사 술어, 보어등 문장 성분이다. 셋 번째는 한국어의 복합관형어가 자립명사와 결합할 때 필수적이지 않지만 의존명사와 결합할 경우 관형어가 반드시 필수성분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중국어 관형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 넷 번째,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의존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양사는 중첩적인 경우 단독으로 관형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수관형사는 단독으로 관형어로 쓰일 수는 있지만 중국어 수사는 단독으로 관형어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다섯 번째는 고립어인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을 차이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복합 관형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유형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3.1절에서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겹침구조에 따라 수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겹침구조는 관형사간의 겹침 구조,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관형사와 체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관형사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체언 관형어와 용언 관형어 간의 겹침 구조, 용언 간의 겹침 구조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겹침 구조에 따라 수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3.2절에서는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겹침구조에 따라 수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유형은 병렬관계의 복합 관형어,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 혼합관계의 복합 관형어 세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세가지 겹침 구조에 따라 수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3.3절에서는 한·중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의 대비하는 내용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수식 구조는 진정 구조인 제Ⅰ형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부가관계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제Ⅱ형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복합 관형어의 수식 관계는 중국어에서 병렬관계의 연합 수식 구조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자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제Ⅱ형으로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제Ⅱ형 수식 구조는 중국어의 병렬관계의 연합 수식 구조의 복합 관형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서 병렬관계의 연합 수식 구조와 개별 수식 구조는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제Ⅱ형 수식 구조를 혼동한다. 복합 관형어의 결합 양상과 결합 순서도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를 사용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다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하지만 한국어 복합 관형어의 어순은 중국어 복합 관형어의 연순보다 더 자유롭다. 중국어에서는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제한성 관형어가 있으면 앞에서 위치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이런 경우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견점은 관형사가 들어가는 복합 관형어 문장은 어순이 다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가 한·중 복합 관형어의 구조를 비교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복합 관형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자주 범하는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중 복합 관형어의 구조를 비교하는 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한·중 복합 관형어의 대비 연구가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국내 학술지논문】

- 강현화 외(2003), 『대조분석론: 한국어·스페인어 문형 대조를 바탕으로』, 서울: 역락.
- 강병진(2005), 현대 중국어 관형어 연구, 성균관 대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강윤옥(2004), 실용중국어문법, 신아사
- 김봉모(1978a), “매김말의 겹침 구조 연구”, 『문창어문논집』 15, 문창어문학회, 50-76.
- 김봉모(1982), 『국어 매김말 연구』, 동아대학교, 논문집
- 김봉모(1992), 국어 매김말의 문법, 태학사.
- 김기복(1999), 「국어의 관형어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송(1973), “관형변형 연구”, 『논문집』 16, 부산대학교, 29-56.
- 김창식(1984), “관형어의 통어구조와 결합관계”, 『논문집』 6-1, 안동대학교, 41-56.
- 김선호(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호(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김형기(1964), '국민의 할바'라는 '국민의'는 과연 주어인가? 논문집4 충남대학교.
- 고영근(1987),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93/2008),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_____(2009),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송효빈(1998), 국어 관형어의 중출현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복(2001), 국어의 관형어 연구, 강원대학교 국어교육학 어문학보

- 이정실(2019), 한국어 관형어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길록(1977), 국어문법 연구, 일신사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原文中不知引用哪个
- 임명순(1992), 現代 漢語 定語와 中心語의 綜合關係에 대한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안연령(2011), 한·중 관형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유호·심지수(202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다중 관형어 사용 양상 연구 『인문학연구』, 제42호 242-269
- 정희진(1999), 관형어의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승(1967), 『표준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정영주(1993), 『우리말 매김씨 연구』, 홍문각.
- 제경미(2019), 한국어 관형어의 영어번역 양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유탉(2014), 국어 관형어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웅(1974), 조합논리회로의 결함검출. 서울: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 학술지논문】

- 劉月華(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增訂本), 商務印書館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出版社
- 劉月華(1984), 《定語的分類和多項定語的語順》, 《語言學和語言教學》, 安徽教育出版社 1984年出版

- 丁聲樹,呂叔湘等(1961),《現代漢語語法講話》,商務印書館。
- 丁崇明(2009),現代漢語語法教程 [M].北京:北京大學出版社
- 邢福義,江國勝(2006),現代漢語 [M].武漢:華中師範大學出版社
- 陸丙甫(1988),定語外延性、內涵性和稱謂性及其順序【M】//中國語文雜誌社.語言研究與探索(四).北京:北京大學出版社
- 崔美敬(2009),韓漢定語對比以及韓國學生的漢語定語偏誤分析.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范繼淹(1958),〈形名組合間'的'語法作用〉,《中國語文》第二期

